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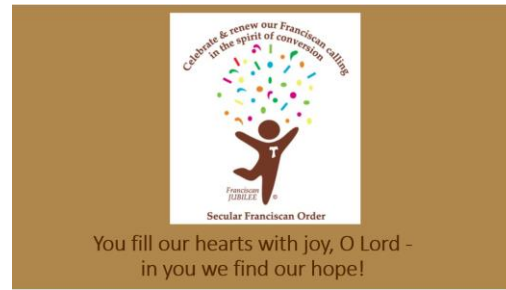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전에 나누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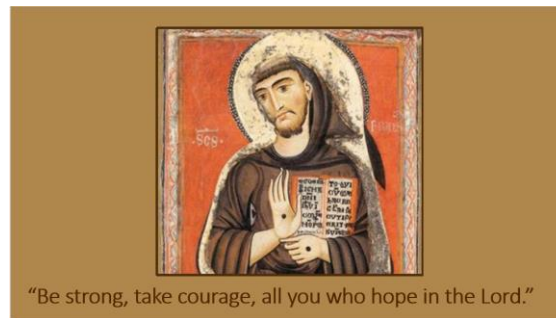
정체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몇 년전 성령강림절에 즈음하여 티보르가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느님의 뜻 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모를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거듭 잘못을 하게 될 것이다.”



일단 하느님께서 우리안에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는 법이다. 2017년에 젊은이들의 비전을 이루려는 일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양성이나 정평환에 대한 비전이 생겼고, 또 다른 많은 꿈들이 잇다라 생길 것이다. 당장 새로운 양성자료를 완성하는



일이나 국가형제회 규정을 수정하는 일같은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결국 이 일들을 해 낼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지 무척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022 년도의 가장 큰 행사인 재속회원의 5년차 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는 참으로 프란치스칸의 축제라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경축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행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계시고, 프란치스칸 영성이 있고,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받을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는 굳건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글에 도움을 주신 국가형제회 부회장 매리 비트너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열심히 봉사해 주신 국가형제회 모든 평의회원님들과 분과위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팀이며 “팀으로 일 할 때 꿈을 이룬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